

다산포럼

“고시·입시에 능했던 어떤 사람들”



김동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대학 재학 중 사범고시 합격, 사범·행정 양시 패스, 고시 수석 등은 대다수 한 국민이 부러워하는 일이었다. 합격자는 고향 내려가나 출신 학교 정문에 이름 석자 드날리는 영예를 누린다. 그들의 노력과 의지에는 존경을, 능력에 대해서는 부러움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 ‘가문의 영광’이 국가나 사회의 영광이었을까? 최근 진경준, 우병우, 홍만표 등의 드러난 행태를 보면서 ‘시험 귀재’가 ‘사익 추구 귀재’가 되어 반사회적 행태를 저지르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사실을 씁쓸하게 확인한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일일까? 조선 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동화일 때 ‘시험 귀재’들은 ‘탐관오리’가 되어 사회를 타락시킨 장본인들이었고, 을사보호조약과 한일강제 병합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

의 작위를 받아 호의호식하였다. 일제하에서 고등고시에 합격한 조선인 거의 전원은 동포들을 학대하는 일제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고시 출신 대다수가 반민주 반인권 권력의 마름 역할을 했다.

물론 뛰어난 ‘능력’을 국가 경제 발전에 쏟았든 청렴하고 우수한 관료들도 많았고, 위의 압력에 맞서 웃을 벗고 인권 변론에 앞장선 법관들도 있었다. 그러나 권력과 대기업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공익을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거나 약자인 국민의 편에 섰던 고위 관료나 법관은 거의 없었다.

이게 개인 탓일까, 제도 탓일까? 나는 제도 탓이라 본다. 고시 제도가 일종의 특권 지위를 보장해 주는 국가 공인 특허권 획득 경쟁이기 때문에 지망자들의 사적 욕망이 공공심을 압도하며, 결국 국가를 사익 추구의 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단 한 번의 단답형 ‘정답이 있는’ 시험 자체에 있다. 현행 고시나 입시로는 사람의 잠재력, 탐구심, 그리고 공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덕성을 평가할 수 없다. 엄격히 등수를 매겨서 승자와 패자를 냉혹하게 가르는 시험은 그 개념이 더 치열하거나 반복 학습가 많을수록 참가자는 더욱 경쟁적 인간

이 된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자신이 얻은 자격이 본인 능력으로 얻은 소유물이라 생각한 나머지 권력과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조직을 사익의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특권 의식, 엘리트 의식을 갖는 그들은 과거에는 총칼을 쥐고 있는 자에게 복종하여 권력과 자리를 얻는 데 능숙했고, 오늘 날에는 최고 부자들의 입 노릇을 하면서 부를 쟁기는 ‘재주’에 능하다.

요즘 세상의 지탄을 받는 ‘고위 공직자’들은 바로 고시 제도가 만들어 낸 ‘괴물’이자 어찌면 이 제도의 희생자일지 모른다. 그 어려운 ‘시험’에서 1등의 성적을 거두었으니, 돈 벼는 일에도 1등을 하려 하다가 1등 범죄자가 된 꼴이라고나 할까? 나향욱 교육부 기획관의 ‘국민 99% 개·돼지’ 발언도 결국은 “나는 행시 출신이니 너희들과 다른 세계에서 살 자격이 있다”는 고위 공직자들의 평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 말의 과거시험 폐지론은 ‘시험 만능’인 오늘의 한국에도 유의미하다. 유행했던 과거라는 시험제도가 올바른 인재 선별의 방법이 아닐 뿐더러 교육·학문·문화와 정치를 타락시킨다고 보았고, 정약용도 과거시험이 “총명한 사람

을 평균적 인간으로 만들고, 국가의 지적 군사 역량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유길준도 “과문(科文)이란 것은 도를 해치는 함정이자 인재를 해치는 그물이며, 국가를 병들게 하는 근본이자 민민들을 학대하는 기구(機具)이니, 과문이 존재하면 백해(百害)가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과거 폐지를 주장했다.

이 시대에도, 고시가 결국 편협한 전문가들의 특권 재생산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고, 국립대학교원이 설립되었으며, 이제 행정고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로스쿨 역시 계급 재생산의 위험이 있고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지만, 국가 공인 특권층 재생산 기제인 고시 제도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고시’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잊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고시는 없어져도 한국식 ‘시험 제도’는 남아 있다는 점이다. 기억력, 어학능력 그리고 ‘정답을 요구하는’ 논술 성적으로 부여한 자격증이 또 다시 특권으로 연결된다면 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시험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장차 객관식, 단답형, 정답 쓰는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적 평가 역량을 길러야 한다.

社說

‘예술시장’에서 작가들 떠나면 무엇이 남나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대인시장에 활기를 찾은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백화점이나 인터넷 판매 확산 등으로 침체일로를 걷던 대인시장은 그러나 7~8년 전부터 청년작가들이 떠나며 ‘문화’를 입힌 덕분에 예술시장으로 떠올라 전국 명소가 됐다.

가난한 청년작가들은 시장의 빈 점포를 싸게 임대받아 작품 활동에 전념했다. 불편한 환경에도 작가들의 창작 노력으로 새 바람이 일었고 여기에 야시장 ‘별장’이 개설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이만큼이 높아지자 ‘얍체 상흔’이 여지없이 고개를 내밀었다. 시장을 찾는 발길이 늘자 건물주들은 3년 전 보증금 20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이던 가게 세를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렸다. 이 바람에 하나둘 떠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

서울과 뉴욕 등의 낙후 지역에 상인

이나 예술가들이 들어와 지역 경기를 살려 놓으면 건물주들이 과도한 자릿세를 요구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예외 없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상인회, 건물주, 세입자, 예술인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임대료 인상 자체 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터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제 다시 대인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913 송정역시장’의 사례가 주목된다. 최근 한 건물주가 높은 임대료를 받고 프랜차이즈점을 들이려 하자 청년 상인들이 돈을 모아 계약금을 몰아주고 막아냈다. 건물주는 또 상인들에게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는 협약을 맺기로 했다.

대인예술시장도 이처럼 함께 사는 길을 택해야 한다. 작가들이 들어와 어렵사리 생기를 찾는 예술시장에서 그들의 등을 떠미는 것은 시장의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중국 관광객 유치 발로 뛰는 노력 필요하다

중국인 관광객도 한 번에 수천 명이 움직인다. 육식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규모다. 따라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경쟁도 치열하다.

중국 관광객 6400명을 실은 크루즈선이 오는 9월 여수에 온다는 소식이다. 상해~여수~후쿠오카~상해의 5박 6일 일정인데 중간에 여수에 들르게 된 것은 전남도가 그동안 공을 들여온 결과다.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이다.

이번에 오는 관광객들은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커티(KELTI) 그룹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의 임직원들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 국제 크루즈선 유치의 기업 보상 관광 정보를 얻어 지난달부터 사전 관광객을 벌여 왔다고 한다.

이번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긴 체류시간(여수에 15시간)을 비롯해서 관광지 무료 입장 등을 조건으로 임했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

국 여행사들이 모객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숙박·식비도 포함되지 않은 조자가 여행 상품으로 문제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도와 협약을 체결한 커티 그룹은 순천낙안읍성, 여수 아쿠아리움, 빅오쇼 등 관광지 3곳 유료관광, 종식 한 차례, 특산물 구입 쿠폰(1인 1만 원) 발행, 승선 체험 제공 등을 약속했다고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중국 크루즈 관광객이 평균 6000~7000원의 저가 식사를 하는데 비해 이번 방문객들은 2만 원짜리 뷔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 이번 성과는 치하할 만하다. 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수집 채널을 가동하고 이들 관광객들이 지역 음식점과 상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춘 특·특

엄마의 밥상



박누리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4년

나는 효심이 깊은 딸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학교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한 달에 몇 차례 고향 집에 다녀오는데, 나는 기껏해야 명절에 한 번 내려가는 게 전부다.

내 고향은 버스를 타고 1시간 2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곳이다. 그리 멀지도 않은 곳에 왜 자주 가지 않았느냐 물어본다면 아르바이트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실제로 휴학 신청을 하고 난 후로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화장품 가게, 빵가게를 거쳐 지금은 근로장학생으로 학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주말이라도

다녀오면 되지 않나 물어보면 그것에는 할 말이 없다. 나는 귀찮아하니 극심한 사람이다.

고향 친구들은 나를 ‘집순이’라고 부른다. 고향에서도 휴일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 작은 자취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나에게 휴일은 집에서 쉬는 날이다. 그런 내가 휴일에 시내버스로 40분을 달려 터미널에 도착해 또다시 버스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험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결코 효심이 지극한 딸은 아니다.

극심한 귀차니스트 집순이인 내가 며칠 전 고향에 다녀왔다. 방학기간 동안 하려고 했던 주말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잘렸기 때문이다. 방학의 대화가 매장에서 주말에만 근무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사치라고 판단한 것 같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짜증이 솟은 나는 엄마에게 전화화를 걸었고 신나게 고자질을 했다. 함께 열을 올리던 엄마는 문득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 집에 좀 오면 되겠네”라고

말했다.

나는 잠시 자취방에 혼자 있어야 할 고양이를 떠올렸다. 그와 동시에 엄마가 차려 주는 밥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응, 근데 금요일 말고 토요일에 갈게. 하루만 자고 올래”라고 대답했다. “토요일 점심 맞춰서 갈게. 돼지고기 김치 떡 먹고 싶어”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토요일 점심시간에 도착한 집에는 역시 돼지고기 김치 찜이 준비되어 있었다. 저녁에는 비빔국수를 먹었고, 일요일 점심으로는 대패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마지막 식사인 일요일 저녁에는 등갈비 찜을 먹었다.

큰 오빠는 나를 위해 준비된 밥상에 “자식 하나 더 와 있다고 매번 메뉴가 바뀌네. 원래는 하루에 찜 하나로 버티면서 잘”라고 툴툴 거렸다. 엄마는 “혼자 살면서 잘 못먹으니가 왔을 때라도 잘 먹고 싶어서 그렇지”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미숙해졌다. 내가 자주 내려왔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밥상이 차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마트에 다녀오

엄마의 손에는 내가 챙겨갈 복숭아가 들려 있었다. 저녁까지 먹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 너무 어두워진다고 걱정하던 엄마는 결국 복숭아를 차에 실었다. 그렇게 자취방까지 엄마의 차를 타고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일찍 떠저 복숭아를 깎아 먹었다. 복숭아 껍질을 위생 봉투에 담으면서 이들은 너무 짧았다고 불평했다. 출근해서 먹은 점심과 집에 돌아와 끊어 먹은 라면이 어제의 밥상과 차이가 커서 우울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복숭아를 깎아 먹었다. 점점 줄어드는 복숭아가 못내 아쉬웠다.

며칠이 지난 지금은 다시 집순이의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저녁으로 햄을 넣은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다가 양이 너무 많아 이틀이나 먹어야 했다. 다 먹어 치운 복숭아를 생각하며 ‘어름이 가기 전에 몇 번 더 사다 먹어야지’ 말만 하고 있고, ‘믹서기를 사다가 과일 주스를 종종 만들어 먹어야지’ 역시 생각만 하고 있다. “이번 방학이 끝나기 전에 다시 집에 다녀와야지, 정말로, 꼭 다녀와야지.”

기고

실업대책과 양극화 해소, 농업에서 길을 찾자



김원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농촌지원단장

최근 제20대 국회가 열리면서 각 당 대표연설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를 거론했고 내년 대선에서도 이슈화될 전망이다 한다. 실업률은 늘고 일자리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최저임금이 낮은 것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큰데 세계경제 회복도 더디고 경제성장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어 당분간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농업부문에 마찬가지로, 산업화시대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도 농가소득은 3721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4.4% 수준으로 낮다. 또한 지난 30년 동안 농가소득은

5배 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12배 증가했다. WTO와 FTA확대 그리고 경쟁면적 1ha미만의 소농이 64%를 점유하는 등 낮은 생산성이 농가소득 정체의 주요 원인이다. 양극화 해소는 물론 평생 직장생활이 가능한 농업농촌에서 그 길을 찾아 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해소를 추구한다. 직불금 지원과 과잉 농산물의 시장격리는 제 때 이뤄져야 효과가 크다. 또 WTO 확대에 수출시장이 열리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61억 달러인 반면에 수입액은 5배인 302억 달러라 한다. 선도농 육성 등을 통한 품질고급화와 신규 수출품목 발굴 그리고 국가별 식문화에 이해하는 등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할랄식품이 대표적이다. 할랄식품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1500조원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0.1% 이하라고 한다. 국가적인 전략마련과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도 강화해야 한다.

지금 농촌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근 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과 귀농·귀촌인 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손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을 위해 56.3% 수준인 밭농사 기계화를 높여야 한다. 특히, 농촌인구의 51.3%가 여성인 점을 감안 여성농업인 체형에 맞는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에 관심을 추구한다.

농업인들도 고품질의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애용이 확대되고 수입농산물도 대체하여 농가소득도 올라갈 수 있다. 또 관련농업으로는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다. 쌀이 대표적이다. 예전에 비해 지금은 먹거리가 풍족해 쌀 소비가 급감하여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패턴도 고급화, 다양화, 글로벌화되고 있다. 껌질을 벗기거나 깎지 않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체리나 블루베리가 인기고 아열대과일 수요도 늘고 있다. 소비패턴을 참고한 새로운 작물 인식과 생산성이 높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팜 등 투자도 늘리는 등 수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유통시장도 급변하고 있다.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나만의 브랜드도 갖추고 나 혼자가 아닌 작목반 등 공동체로 규모화도 필요하다. 최근 농업정보 습득 및 활용과 함께 생산·가공·유통의 1~3차 산업에 관광과 체험 등을 연계한 6차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도 큰 몫을 차지한다. 신도불이

(農土不二) 즉 우리 땅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이 보약이다. 우리농산물의 가격을 지지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우리의 일자리도 지키게 된다. 농업경시 풍조는 지양돼야 한다. 농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농촌을 지키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농업을 천시하면 누가 식량을 공급해주고, 누가 농촌에서 살며, 누가 농촌에서 미래를 찾겠는가?

2014년 12월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서울대 강연에서 “미래 최고 유망업종은 농업이다”고 말했다. 실례도 많다. 2014년 말 기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85%가 농업에 종사하며 이들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일반농가 소득의 2배 이상인 8600만원 이었다. 이 수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보다 1.5배 높은 것이다. 전남의 경우 2015년 역대농부는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분령 농업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다. 지난 7월7일은 정부가 정한 ‘도농교류의 날’ 이었고, 7월11일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인구의 날’ 이었다. 곧 방학과 휴가철이다. 농촌경제로 침체일로에 있다. 해외보다는 국내 특히, 농촌을 찾아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의 현장을 보여주고, 농산물 수확과 특산물로 만든 음식체험도 하면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발견, 희망을 찾길 소망해 본다.

無等鼓

최근 출간된 ‘헨리 키신저의 세계 질서’를 읽으면서 한국전쟁 관련 내용에 눈길이 머물렀다. “그는 저우언라이에게는 만약 미국이 평양에서 원산을 잇는 선을 따라 남아 있다면 중국군은 곧바로 공격할 필요가 없으며 강화(講和) 훈련을 위해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는 대목이다.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후 38선을 돌파해 빠른 속도로 북진하는 UN군을 두고 있는 마오쩌둥의 말이다.

당시 중공은 미군이 중국 국경선을 따라 주둔하는 상황을 원치 않았다. 임진

정전협정 63주년

애란 때와 마찬가지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脛亡齒寒)는 논리로 잠정하게 된 것이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3년 1개월 2일 17시간 만에 끝났다. 포성이 멎긴 했지만 종전이 아닌 휴전(休戰) 또는 정전(停戰)이었다.

미국 전쟁다큐멘터리 작가 존 톨랜드는 역대 ‘6·25전쟁’에서 7월 27일 오전 10시 조인된 정전협정장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두 사람은 각자 휴전협정 서류에 18번 서명을 했다.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UN군 수석대표인 윌리엄 K. 해리스 중장과 인민군·중국군 수석대표인 남일이다. 판문점 내 새로 지은 T자형 조인식장은 ‘평화의 탑’(Peace Pagoda)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휴전협정은 통신시설이 열악한 공산측의 사정을 감안해 12시간이 지난 밤 10시 정각부터 발효됐다.

내일(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인해 한반도

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한민족끼리 이념의 차이로 갈려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무엇보다 전쟁 때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심수년 전 금강산 관광을 갔을 때만 해도 평화와 화해 무드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감은 이제 색이 바래다.

남과 북의 대타트(Detente : ‘긴장 완화’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시대는 요원한 걸까? 그래도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의 탑이 쌓일 날은 언젠가 찾아 올 것으로 믿는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s.